



영화 '모가디슈', '인질', '싱크홀' (왼쪽부터)이 최근 극장가 흥행세를 이끌면서 한국영화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

## 한국영화 흥행 3편, 마블 히어로물 안 무섭다

300만 육박 '모가디슈' 올 최고 흥행 '인질' '싱크홀' 박스오피스 1·2위에 '상치와 텐 링즈의...' 내달 1일 개봉

극장가 '삼두마차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세 편의 한국영화가 극장 관객을 이끄는 가운데 '모가디슈'가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고, '인질'도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신규 개봉작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서 박스오피스 상위권의 세 작품이 당분간 극장가 흥행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29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

르면 28일 현재까지 '모가디슈'(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가 전국 누적 299만3000여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에 따라 '모가디슈'는 '블랙 위도우'(295만8500명)를 제치고 올해 최고 흥행작 자리에 올라섰다. 또 박스오피스 1위인 '인질'은 11일 개봉 이후 11일 만인 28일 현재까지 누적 102만5000여명을 동원했다. 2위 '싱크홀'도 이날 현재까지 누적 190만7000여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모가디슈'는 토요일인 이날 6만5000여명을 동원하고 일요일인 29일에도 엇비슷한 규모의 관객을 이끌어내며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싱크홀'도 주말 평균 70000만여명을 불러내어 200만 관객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질'의 100만명과 함께 세 편의 한국영화의 의미 깊은 흥행 수치를 쓴 셈이다. 여기에 25일 개봉한 공포 영화 '귀문'이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영화가 상위권을 장악하며 박스오피스를 이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극장가와 영화계는 세 작품이 당분간 관객 발길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9월1일 개봉하는 할리우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빼고는 기대작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인질'과 '싱크홀', '모가

디슈'가 실시간 예매율 2~3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1위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로, 29일 오후 1시30분 현재 32%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 '인질'의 22%보다는 앞서지만 월등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과 '인질'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두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싱크홀'과 '모가디슈'의 선전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과 '인질' 등 네 편이, 추석 연휴를 겨냥하며 개봉하는 '기적'과 '보이스'의 '한국 영화 2파전' 직전까지 극장가를 이끌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슬의생2'가 진부해? 시즌제 태생적 한계에 봉착

시청률 12%대불구 비슷한 전계 지적 '시즌제 이해 부족, 인물 비중 변화 없어'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 SBS '펜트하우스' 등 시즌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경계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드라마 인기와는 별개로 시즌 지속성에 대한 시청자 우려가 나온다. 속성상 이전 시즌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현재 방송 중인 '슬의생2'는 최근 12%대(이하 닐슨코리아) 시청률로 '펜트하우스'에 이어 미니시리즈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영한 시즌1과 비교하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즌1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글이 최근 부쩍 늘어났다.

방송가에서도 시즌3 제작은 당분간 힘들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정석·전미도 등 주인공들이 이미 다른 차기작을



'슬의생2' 의대 동기 5인방

결정된 데다 '서울대 99학번 의대 동기' 5인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선이다.

'펜트하우스' 시리즈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 않다. 시즌3에 접어들면서 더욱 악화한 개연성 부족 문제가 무리한 시즌 연장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시즌3까지 이야기를 늘리면서 인물관계가 복잡하게 꼬였고, 이로 인해 재미도 반감됐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많다. 지난달 중영한 tvN '보이스4' 등 또 다른 시즌제 강자들도 이전보다 못한 성적으로

퇴장했다.

전문가들은 "시즌제 드라마에 대한 제작진의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29일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다양한 캐릭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시즌제의 장점이자 지속성을 위한 요소"라면서 "미국·영국 등 시즌제가 이미 자리 잡은 해외에서는 캐릭터 비중이 시즌마다 다르다. '슬의생' 등은 전 시즌과 비교해 중심 캐릭터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시즌을 이어가려면 색다른 등장인물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월화·수목 등 일정한 방송시간대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시즌제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일부 연기자와 연출자에게 일이 몰리는 시스템 안에서 한 작품에 '올인'하는 건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손담비·정려원 얽힌 '구룡포 수산업자 스캔들'

'구룡포 스캔들'이 연예계로 번졌다. 연기자 손담비와 정려원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포항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량과 명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지만 관련 구설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일부 매체는 손담비가 2019년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촬영하며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알게 돼 외제 차량과 명품 등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손담비가 정려원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도 김씨가 대신 갚아줬다고 썼다. 정려원이 손담비 소개로 김씨를 만나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담비와 정려원은 이를 부인했다. 손담비는 "2019년 당시 수산업자 김씨가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서 음료와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했다"면서 "이후 김씨가 일방

모바일	18:14:41	출금	
타행PC	15:44:07	입금	
모바일	15:41:02	출금	35,000,000 원

정려원 입출 내역

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을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정려원도 "김씨가 친동생이 중고차 회사를 가지고 있다며 (관심 있었던 중고차)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 샀다"며 관련 입금 내역을 공개했다.

김씨는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등 사기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도훈 전

일부매체 '외제차·명품 등 받아' 손담비·정려원은 "다 돌려줬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여성성설 앵커와 정모 기자, 중앙일보 이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 등에게 금품을 준 정황을 포착,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일부 연예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7월 제기됐고, 일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일부 연예인이 팬덤에 취약한 현실을 지적한다. 29일 한 관계자는 "애정을 표해오는 팬을 마냥 경계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면서도 "그럼에도 외제 차량 등 거액의 선물을 받은 건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씁쓸해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돌 스타가 일정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팬덤을 갖춘 데 비해 연기자는 작품을 통한 일반의 선호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연예인 팬덤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마마무

## 휘인만 다른 소속사와 계약 마마무 일단은 '따로 또 같이'

2023년 12월까지 활동 연장하기로

걸그룹 마마무 멤버들이 '따로 또 같이'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데뷔 7년 차를 맞은 마마무는 다음 달 베스트 앨범을 발표한다. 최근 멤버 휘인을 제외하고 솔라, 문별, 화사만 소속사 RBW와 재계약을 체결해 마마무의 그룹 활동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만큼 새 앨범에도 시선이 향한다. 휘인이 소속사를 달리 하기로 했지만, 2023년까지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앨범 제작 및 발표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현재 막바지 앨범 작업 중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4년 데뷔 이후 7년 동안 활동해오며 팬들의 사랑을 받은 곡을 골라 담는다. 신곡 2곡도 수록한다.

이와 관련해 휘인은 오랜 논의 끝에 개인으로는 RBW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까지 마마무 연장 활동에 합의함에 따라 팀 활동은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휘인은 현재 접촉 중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향후 개별 활동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5

송가인·아이즈원 출신 장원영 코로나 확진



송가인

트롯 가수 송가인과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송가인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29일 "송가인이 최근 몸에 이상을 느껴 관련 검사를 받았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격리시설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장원영과 안유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스타트와 동선이 겹쳐 관련 검사를 받은 결과 장원영은 양성, 안유진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준영, 음주운전 의심 차량 뒤쫓아 검거 도움



이준영

그룹 유키스 멤버 겸 배우 이준영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 경찰의 검거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준영의 소속사 NH EMG에 따르면 이준영은 25일 오후 9시35분경 스케줄을 마치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뒤따라가며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 이준영은 경찰이 운전자를 잡은 이후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7일 공개된 넷플릭스 'D.P.'에 출연했다.

방탄소년단, 가수브랜드 평판 1위



BTS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기업평판연구소가 29일 발표한 8월 가수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7월28일부터 8월28일까지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2635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틱톡(TikTok) 계정으로 공개한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영상도 화제에 올랐다. 멤버 지민의 영상이 공개 이틀 만인 28일 480만뷰를 넘겨 빌보드 틱톡 영상 중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멤버 뷁가 2016년 10월 정규 2집 '윙스'로 공개한 솔로곡 '스티그마' 또한 글로벌 음원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97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역주행 기록을 세웠다.

홍진경, 저소득층에 식품 2억4000여만원 기부



홍진경

방송인 홍진경이 결식자와 저소득층 등을 위해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홍진경 소속사 블리스미디어에 따르면 홍진경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했다. 기부된 식품은 지역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카카오TV 예능 '공부왕 찐재 홍진경'을 통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는 '연애도사 시즌2', '홍진경의 영화로온 덕후생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등에 출연 중이다.

에이미, 7개월만에 또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에이미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로 돌아온 지 7개월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됐다. 29일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에이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에이미는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사범 수사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 관련 첩보를 입수, 검거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